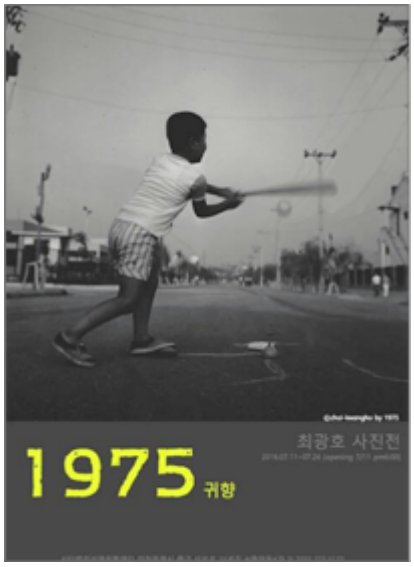


동네방네 알림판(2016.07.06.~07.18)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널리 알리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8.2(화), 8.16(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1975 귀향
최광호 사진전

최광호 사진전 '1975, 귀향'(~07.24. 신포동 선광미술관)

사진작가 최광호의 사진전 '1975, 귀향'이 7월 24일(일)까지 선광미술관(인천 중구 신포로 15번길 4)에서 열린다. 올해 60세가 된 작가가 자신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12번의 전시 중 6번째 전시다. 선인고등학교 '독수리 사진반' 시절 작품들은 물론 작가가 처음 사진을 시작하며 찍은 인천의 1970년대 풍경과 그의 가족에 관한 사진들이 가득하다. 소래포구를 지나는 수인선 꼬마열차, 바닷물에서 말리는 목재, 부평공동묘지, 만석부두 등 1970년대 인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중심으로 '죽음'을 주제로 한 시리즈 작품이 전시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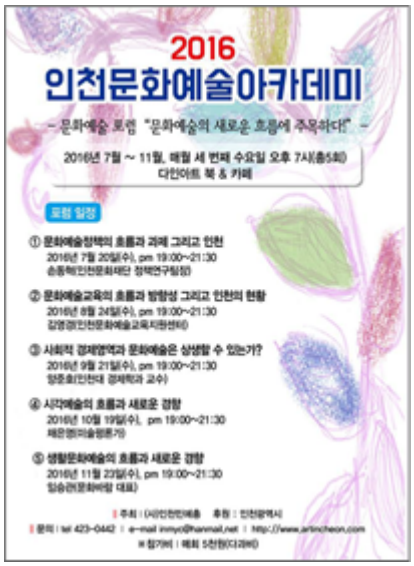
☞ 문의:032-773-1177

예술가의
자기경영을 위한
IAP 특강 04
강의명 미술전문기자에게 듣는 미술판 이야기
강연자 노형석(한겨레 신문사 기자)
강연일시 2016.7.20(수) 17시
강연장소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수강인원 50명 선착순 예약자
신청방법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강연자 소개 노형석

IAP특강 '미술전문기자에게 듣는 미술판 이야기' (07.20 수 17시, C동 공연장)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위해 창작 및 기획 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진행되는 인천아트플랫폼 특강(7/20 수 5시, C동 공연장)이 7월에도 진행된다. 이번 달에는 미술과 문화재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오며 여러 권의 저서를 펴내기도 한 한겨레신문 문화부의 노형석 기자가 '미술전문기자에게 듣는 미술판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미술계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효과적인 전시 홍보 방법은 물론이고 미술계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무료.

☞ 신청 http://goo.gl/forms/ln4An28QQMsWmAD82



2016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
- 문화예술 포럼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다" -
2016년 7월 ~ 11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7시(총5회)
다인아트 북 & 카페

포럼 일정

① 문화예술정책의 흐름과 과제 그리고 인천
2016년 7월 20일(수), pm 19:00~21:30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②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방향성 그리고 인천의 현황
2016년 8월 24일(수), pm 19:00~21:30
김영경(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③ 사회적 경제영역과 문화예술은 상생할 수 있는가?
2016년 9월 21일(수), pm 19:00~21:30
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④ 시각예술의 흐름과 새로운 경향
2016년 10월 19일(수), pm 19:00~21:30
채은영(미술평론가)

⑤ 생활문화예술의 흐름과 새로운 경향
2016년 11월 23일(수), pm 19:00~21:30
임승관(문화바람 대표)

주최 : (사)인천민예총 후원 : 인천광역시
문의 : tel 423-0442 | e-mail inmyc@hanmail.net | http://www.artincheon.com
※참가비 : 매회 5천원(다과비)

문화예술포럼-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다

(07.20 수 19시, 신포동 북앤커피)

(사)인천민예총이 진행하는 2016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다'라는 주제로 5차례에 걸쳐 문화예술포럼을 진행한다. 이 포럼은 매달 세 번째 수요일 7시. 신포동 북앤커피에서 진행된다. 문화예술정책부터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 시각예술, 생활문화예술 등을 다룬다. 7월 20일(수) 오후 7시에 열리는 첫 번째 포럼은 '문화예술정책의 흐름과 과제 그리고 인천'이라는 주제로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정책연구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 문의:032-423-0442

추억극장 미림,
공포영화의 밤.
7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샤이닝(1980), 기담(2007) 동시 상영 +1 free drink or beer

미림 호러나이트 **1탄(07.21 목 19시, 추억극장미림)**

미림극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 7인의 모임 '미리미'에서 주최하는 특별한 영화상영회 '공포영화의 밤'이 찾아온다. 7월과 8월에 한번씩 '미리미'가 엄선한 2편의 영화를 동시상영하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을 오후 7시부터 상영하고, 중간 휴식 시간에 이벤트가 진행된 후 밤 10시부터 정식/정범식 감독의 '기담'이 상영된다. 19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 8천원에 맥주가 제공된다. 선착순 예약 마감.

☞문의:010-6601-3508

너와 나의 이야기
빙고
탱고
2016. 7. 22. FRI. PM 7:30
아카이브카페 빙고

인천콘서트챔버 7월 기획연주 빙고탱고(7.22 금 19시 30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천콘서트챔버에서 신포동의 아카이브카페 빙고와 함께 ‘빙고탱고’ 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음악회를 준비했다. 무대와 객석이 나뉘어진 공연장이 아닌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지만 매력적인 공연이다. 현악기, 타악기, 아코디언, 색소폰의 편성으로 귀에 익숙한 곡부터 탱고와 보사노바 편곡까지 만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15,000원(현장 예매)

☞ 문의:032-772-3338, www.inconcham.com

한여름 밤 잔디밭 "영화상영"
7. 23.(토)
영화는?
20:00
싱스트리트
비긴어게인 존카니 감독
"싱스트리트"
(2016.5월 개봉작)
준비물 : 개인 돗자리 지참
문의전화 : 부평구 문화예술과
(032-509-6410)
주최 : 부평구
□ 장 소 : 미군 부대 내 잔디광장

한여름밤 잔디밭 영화상영(7.23 토 20시, 부평 미군부대 내 잔디광장)

부평구가 여름밤 야외에서 대형스크린으로 영화를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영화는 첫눈에 반한 그녀를 위해 인생 첫 번째 노래를 만든 소년의 가슴 떨리는 설렘을 담은 ‘싱 스트리트’다. ‘싱 스트리트’는 ‘원스’와 ‘비긴 어게인’을 만든 존 카니 감독의 최근작이며, 개인 돗자리를 가져오면 편하게 볼 수 있다. 영화는 8시부터 상영되고 페이스페인팅, 에코백 만들기, 풍선&야광팔찌 체험, 부채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는 6시부터 진행된다. 백운 2001아울렛 버스정류장 인근의 부평미군부대 잔디광장으로 오면 된다.

☞ 문의:032-509-6410

2015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PENTAPORT

펜타포트 라이브 딜리버리(7.23 토 / 7.30 토)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펜타포트 라이브 딜리버리’가 7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7월 23일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마더팝콘, 파머씨, 사라플라이, 벌꽃필, 밴드민하 등이 공연한다. 같은 날 저녁 8시에 신포동 ‘흐르는 물’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앨범 ‘흔치 않은 노래들’ 쇼케이스를 겸한 포크 공연이 열린다. 양병집, 장재흥, 김수현이 노래손님으로 나오며, 입장료는 만원. 7월 30일에는 청라 호수공원 분수무대에서 허니비, 열에아홉, 재즈볶음, 파티크래셔 등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pentaportroc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중창축제
노래로 날다

인천중창축제 ‘노래로 날다’ 참가자 모집

실내악단 아이신포니에타에서 인천 아마추어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학창시절 중창단 활동을 했던 분, 노래에 관심이 있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때 그 노래들, 함께 모여 다시 불러보는 기회입니다. 주 1회 동인천에 위치한 ‘콘서트하우스 현’에 함께 모여 레슨을 하고, 10월에 합동 연주회까지 진행합니다. 정진성, 정수진, 이선린 3명의 음악가와 함께 그 때 그 시절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배울 수 있습니다.

☞ 문의:032-834-1055, 010-9155-1055. http://i-sinfonietta.com

음악을 향한 여정을 담은 클래식 콘서트
루체뮤직소사이어티
24th Concert
김광석과
겨울나그네
PROGRAM
슈베르트
김광석
2016년 7월 29일(금) 저녁 7:30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공연장

루체뮤직소사이어티 24번째 콘서트(7.29 금 19:30, 검단복지회관)

문학,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음악을 결합한 신개념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는 연주단체 루제뮤직소사이어티가 24번째 콘서트 <김광석과 겨울나그네>를 마련했다. 딸바보에 메모광이었던 故 김광석의 삶과 슈베르트의 음악을 향한 여정을 담은 이 공연은 가수의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되는 실내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등 김광석의 노래와 슈베트르의 죽음과 소녀, 마왕, 아베마리아, 네 손을 위한 판타지 D.940 등을 감상할 수 있다. 7월 29일(금) 저녁, 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연한다. 전석 1만원.

☞ 문의:032-561-4115

예매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nticket.com/pfm/sub01_view.html?p_idx=937

동네방네 알림판(2016.06.22.~07.05)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널리 알리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7.19(화), 8.9(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성냥공장 아가씨
소문
rumor
2014.9.12 ~ 9.14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2012.12.21 ~ 12.30
상장

극단 십년후 대한민국 연극제 은상 수상 및 사무실 이전

극단 십년후(대표·송용일)가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인천에서 열린 전국연극제 이후 8년 만의 단체상 수상입니다.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극단이 경쟁한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인천을 대표해 연극 '배우 우배'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극단 십년후는 단체상인 은상(충북교육감상·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 하성민도 개인상인 남자연기상(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으니, 극단 십년후가 두 개의 상을 받은 셈입니다. 십년후는 지난 4월에 끝난 인천 항구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2년 초연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어린이뮤지컬 ‘삼신판타지’의 제주.청주 공연도 잘 마쳤습니다. 얼마 전 신포동으로 사무실 겸 연습실(중구 신포로 31번길 6 4층)을 이전한 십년후는 중구 지역을 기반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ME 2016
미래를 여는 융복합 MICE 산업
KOREA MICE EXPO 2016
2016. 6.9-6.10 인천 송도컨벤시아

KOREA MICE EXPO 2016
2016
KOREA MIC

루체뮤직소사이어티, KOREA MICE EXPO 2016 참가 성과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미래를 여는 융복합 MICE 산업’을 주제로 KOREA MICE EXPO 2016가 개최됐습니다. 총 248개사, 439부스가 참여한 이번 엑스포에 2016 공연장상주단체들도 참여해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엑스포에서 ‘유재하와 라흐마니노프(2015년 상주사업 창작 작품)’로 쇼케이스를 진행한 루체뮤직소사이어티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인 (주)피플엑스가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공연이 가능한 클래식 단체를 찾던 중 KOREA MICE EXPO 2016에서 루체뮤직소사이어티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이 회사와 계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한다고 합니다. 11월 중에 음악극 ‘마님이 된 하녀(2014년 상주사업 창작작품)’ 또는 ‘유재하와 라흐마니노프’ 가운데 한 작품을 공연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032-427-9093

다락소극장 개관 5주년 기념공연 제1탄
제1탄
남자이야기
원제 | 싸이판
2016.7.7(목)-7.17(일) 오후 7시 30분
다락소극장

연극 남자이야기(7.7~7.17)

신포동 다락소극장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1탄은 '싸이판'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이야기'(전창걸 작, 이상필 연출)입니다. 남자들의 현실과 로망에 관한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연극은 7월 7일(목)부터 17일(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합니다. 전석 2만원이며, 예매시 30% 할인됩니다. 8월에는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 문학시어터에서 다락 연극산책도 준비되고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문의 : 032-777-1959

SAC ON SCREEN
추억극장 미림
2016년 7월~12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4:30
선착순 무료 입장
미림

극장에서 만나는 무대(7.9 토 16:30)

우수 공연, 전시 콘텐츠를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는 프로젝트 <SAC ON SCREEN>을 인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립니다. 추억극장 미림이 예술의 전당과 함께 매월 1편씩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 영상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7월의 상영작은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동인천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추억극장 미림에서 생생한 무대 위로 영상 여행을 떠나보세요! 전석 무료.

☞ 문의 : 032-764-8880, www.facebook.com/milimcine

씨네인천 오픈특강 제1강
2016년 7월 12일(화)
영화라는 우주에서 생존하기
조성희 감독과의 대화
씨네인천 오픈특강 제1강
영화라는 우주에서 생존하기
: 조성희 감독과의 대화

씨네인천 오픈특강:조성희 감독과의 대화(7.12 화 15:00~)

씨네인천-오픈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성희 감독의 영화 <짐승의 끝>, <남매의 집> 상영과 토크로 구성되는 본 행사는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영화를 만드는 일, 영화를 보는 일, 영화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상영은 3시부터, 토크는 오후 7시부터 영화공간주안 3관과 틈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시리즈로 진행될 <씨네인천 오픈특강 제 1강> “영화라는 우주에서 생존하기: 조성희 감독과의 대화”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기획홍보팀, 070-4907-2179 www.ifc.or.kr

인천 평화창작 가요제
2016. 6월 27일(월)부터 7월 15일(금) pm6:00까지

2016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참가 신청(~7.15)

“대한민국을 대표한 평화의 노래를 찾습니다!” 국제적 평화도시 인천, 남북교류협력 중심도시 인천에서 평화와 생명존중, 더불어 사는 삶을 노래합니다. 인천에서부터 평화의 노래를 찾는 과정을 통해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의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평화’를 표현하는 모든 내용을 환영하며, 순수 창작곡이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가요, 성악, 합창, 락, 힙합, 국악, 아카펠라 등 모든 장르 가능합니다. 2016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의미와 가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국적, 성별, 프로 및 아마추어 상관없이 참가 가능하며, 7월 15일(금)까지 접수합니다.

☞ 문의:032-442-8017,http://cafe.daum.net/ic-peacesong

동네방네 알림판 2016.06.08.~06.21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7.5(화), 7.19(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칠통마당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 개관식(6.25, 16:00)

‘시민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가 6월 25일(토) 드디어 개관합니다. 아트플랫폼 A동과 H동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H동 2층은 다목적실입니다. A동 1층은 이음마당 (기존 커뮤니티홀), 미술방 2개실(신규)이, 2층에는 연습실, 다목적실, 모임방(小,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3/4분기 정기대관이 6월20일(월)~30일(수)까지 진행 중이며, 정기 대관을 놓쳤더라도 해당 월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이 가능(예:7월14일 대관->7월1일부터 예약)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생활문화팀 032-760-1034

머리를 내어놓아라
2016. 6.23-6.25
평일 8시, 토요일 3시/6시

연극 ‘머리를 내어놓아라’(6.23~6.25, 평일 8시/토 3시,6시, 인천 다락소극장)

과연 우리는 보이는대로 보고, 들리는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감각을 감추는 미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연극 [머리를 내어놓아라]는 손과 발, 머리까지 힘껏 웅크린 우리네 삶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풍자합니다. ‘극장은 세상의 작은 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극단 작은방이 펼쳐내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세요. 공연은 무료 입장이며 자발적 후불제로 진행됩니다. 관람 후 자유롭게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010-3837-4939

책 듣는 수요일(6.29, 16:00, 한국근대문학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6월부터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책 듣는 수요일>을 진행합니다. 6월 주제는 ‘근현대 한국문학, 눈에 보듯 읽다’로 문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윤정미 사진전 <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문학>과 함께합니다. ‘책 듣는 밤-독야청정’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북 칼럼니스트 ‘박사’가 흥미로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립니다. 낭독으로 듣는 작품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문화가 있는 수요일,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오셔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인천문화재단 제55회 목요문화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일시 2016. 06. 30(목) 14:00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H동 2층
성동구 현황 및 대응 방법

젠트리피케이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6.30, 14:00~, 인천아트플랫폼 H동 2층)

인천문화재단이 제55회 목요문화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다룹니다. 서울 성동구청 고선근 지속가능정책팀장,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김하운 대표,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대표, 경인일보 박경호 기자가 발표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할 것인지 뜨겁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또한 4월 목요포럼 ‘색다른 민간 문화공간의 사례로 살펴보는 도시 재생’ 자료집이 나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발표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발표 자료와 그날 논의된 이야기를 재구성해 한결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4월 목요포럼 자료집은 http://me2.do/FREFwsu4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재단 정책연구팀 032-455-7136

2016
인천문화예술
아카데미
2016년 6월 7일 ~ 7월 8일
인천민예총 복합문화공간 해시
공연과 인문학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꿈'
공자 사상의 현재성

2016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6.7~7.8, 매주 화요일 10시.목요일 7시, 복합문화공간 해시)

2016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는 고전과 예술을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중층적 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화요일 오전 강의는 윤진현 박사(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대표)가 ‘공연과 인문학-더 나은 세계를 향한 꿈’이란 주제로 5개 강좌를 진행하고, 목요일 7시 강좌는 ‘공자 사상의 현재성’이란 주제로 이우재(인문서당 온고재 대표) 선생께서 5번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민예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는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예술과 문화예술의 감상과 창조의 진정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의:032-423-0442, 010-5322-1913

12회
인천여성
영화제
2016.7.15.금-7.17.일
영화공간 주안

제 12회 인천여성영화제(7.15~7.17, 영화공간주안)

12회를 맞는 인천여성영화제가 7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영화공간 주안에서 열립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2005년 시작된 인천 유일의 여성영화제로 매년 7월 20~30편의 여성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해인 만큼, 12회 인천여성영화제는 ‘혐오를 넘어,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연대’를 주제로 열립니다. 개막작 <불온한 당신>, 폐막작 <야근 대신 뜨개질>을 비롯해 ‘헌팅 그라운드’, ‘눈길’, ‘위로공단’ 등의 장편영화와 일상적인 관계와 심리, 폭력과 불안 등을 표현한 다양한 주제의 단편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인천여성영화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천의 여성감독들이 만든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인천여성감독열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화 상영은 무료이며, 페미니즘 도서관, 밤새도록 야외에서 영화를 보는 미드나잇 시네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문의:032-471-3080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정식 개관

인천지역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전문 연습장인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공간은 1층 대연습실(약 52평), 2층 중연습실(약 24평), 다목적실(27평), 리딩룸(7평)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공간은 월요일~토요일(10:00 ~ 22: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방네알림판 **2016.5.17~6.7**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6.21(화), 7.4(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6.15, 15:00)**

인천지역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전문 연습장인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합니다. 6월 15일(수) 오후 3시부터 개관식이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먹을거리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공간은 1층 대연습실(약 52평), 2층 중연습실(약 24평), 다목적실(27평), 리딩룸(7평)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화)부터 2016년 3분기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수시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 문의는 032-868-9163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세미나
MOU 체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와 협력, (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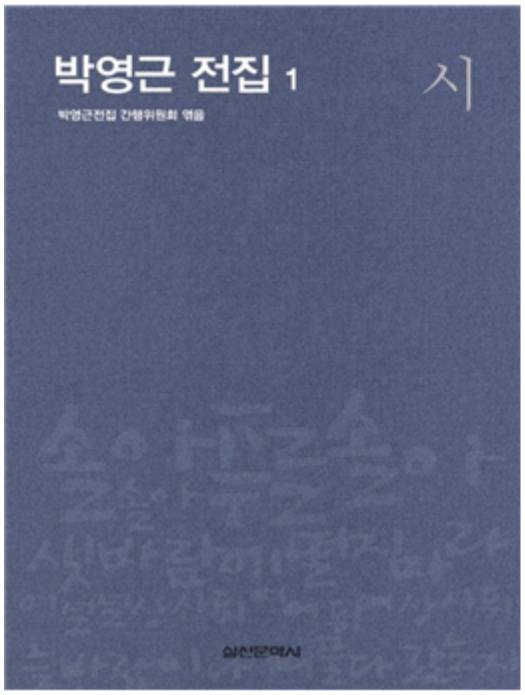
지난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제주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2012년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 모체로 그 고유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과 격차해소를 통한 문화국가의 실현,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자치의 건전한 육성, 지역문화재단의 연대강화와 협치를 통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문화발전, 문화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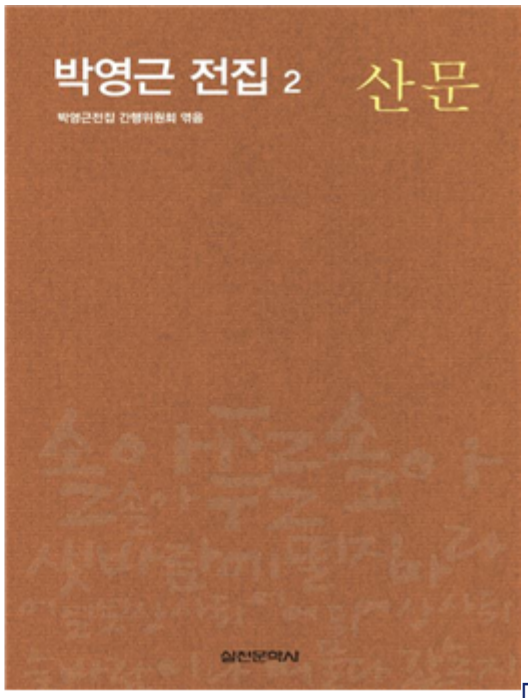
☞ 문의는 032-868-9163

아트레인
전통목선 기증
개항호

영림목재(주), 인천문화재단에 전통목선 기증

지난 5월 24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영림목재(회장 이경호)의 전통목선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기업의 현물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구제병 경인기계 대표, 이상국 삼광조선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영림목재에서 기증한 전통목선은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거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인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부 캠페인 아트레인(ARTrain)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박영근 전집 1
시
박영근전집 간행위원회 엮음
실천문학사

박영근 전집 2
산문
박영근전집 간행위원회 엮음
실천문학사

박영근 시인 10주기 맞아 전집 간행

고 박영근 시인(1958~2006)의 전집이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영근 전집 간행위원회’가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펴낸 전집은 시 전집과 산문 전집 등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근 전집 1-시’에는 시인이 생전 펴낸 시집에 수록된 시 전편과 수록되지 않았던 시 40편이 실려 있습니다. ‘박영근 전집 2-산문’에는 산문집과 시평집의 원고는 물론 생전에 발표했던 글들과 미발표 원고가 포함됐습니다. 생전에 시인이 즐겨 걸었던 부평 신트리공원에는 안치환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그의 시 ‘솔아 푸른 솔아’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전집 출간을 통해 시인의 작품세계와 문학적 업적이 엄밀하게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 02-322-2161

Space_Light_G1:Prismatic Garden 전(인천아트플랫폼 G1, 6.2~6.16)

박혜원, 김창겸, 김용철, 양쿠라 4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영상과 스테인드글라스의 융복합 공간회화연구 프로젝트 전시가 인천아트플랫폼 G1갤러리에서 열린다. 박혜원 작가는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조각에 투과된 다채로운 빛의 그림자를

흰그물에 매단 작업과 LED조명과 색유리를 통한 공중정원을 선보인다. 김창겸 작가는 우물에 비친 계절의 시간성과 꽃으로 정원을 만든 컴퓨터 영상작업을, 김용철 작가는 다채로운 빛깔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낸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양쿠라 작가는 사라져가는 하나의 생명체를 기록해내러티브가 강화된 융복합의 공간을 꾸몄다. 공간이 예술로서 재창조되는 다양한 작가들의 시도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 6.16(목)까지 열린다.

생활문화센터 명칭 공모 결과 발표

재단에서는 올 상반기 개관 예정인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많은 관심 속에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81건의 명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최우수작 2건, 우수작 2건이 선정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 개관식(6/24, 16:00)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감사드리며 곧 개관할 생활문화센터를 기대해주세요.

☞ 문의는 생활문화팀 032-760-1037

2016 부평 지속가능발전주간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

부평 음악·융합도시 포럼(6.9 14:00~17:00)

부평구문화재단이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를 열어가는 부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 대표와 ‘문화다움’ 추미경 대표가 발제를 맡고, 경기대 이영범 교수와 박준흠 사운드네트워크 대표이사, 세움의 유세움 대표가 토론으로 참여합니다. 포럼은 부평 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생력있는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과제 및 문화도시 부평을 전망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032-500-2043

동네방네알림판 2016.5.3~5.16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5.17(화), 6.7(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2016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토론회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청년들의 제안
"문화도시 인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인천을 직접 만들어가고 향유해 갈 청년들이 상상하는
"문화도시 인천"에 대한 제안의 자리입니다.
일시 2016. 05. 27(금) 15:00-17:00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발표자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청년들의 제안(5.27.금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문화도시 인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재단에서 마련한 2016년 상반기 문화정책토론회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청년들의 제안'은 영상, 음악, 전통 분야의 활동가와 문화기획자, 행정가, 기자, 대학생 등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이 내놓는 8가지 제안이 발표됩니다. 새로운 인천을 직접 만들어나가고 향유해 갈 청년들이 상상하는 문화도시 인천을 그리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재단 정책연구팀, 032-455-7136

☞ 자세히 보기

청년, 인천을 말하다(5.23 월 14:00 인천YWCA 대강당)

인천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청년들과 함께 이루고자 마련한 인천청년문화정책포럼의 두 번째 시간, '청년, 인천을 말하다'가 진행됩니다. 지자체 중심의 청년 지원 사례 분석(정윤희), 인천시 청년정책의 현주소(홍정화), 내가 자란 곳에서 살아가기(김토일) 각기 다른 주제로 3분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문의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문화분과, 032-433-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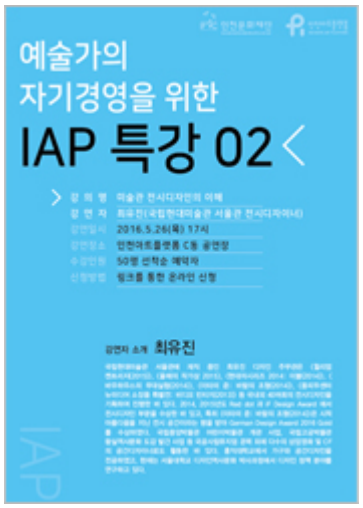
☞ 신청하기

MAY
33 festival | 33rd anniversary BOTTOMLINE
JUNE
33rd anniversary!
33 festival
BOTTOMLINE
2016. 5.17 – 6.18
MON
TUE
WED
THU
FRI
SAT
SUN
5/16
17
18
19
Color of City
20
21
22
쉬는 날
23
24
25
26
Songs we know
27
28
쉬는 날
29
30
쉬는 날
31
Fake JAZZ
6/1
2
Play
famous songs
3
The Burgundy
4
5
6
7
Fake JAZZ
8
9
10
11
12
13
쉬는 날
14
15
16
17
SJQ
18
19

인천 재즈클럽 버텀라인 33주년 기념 페스티벌!(5.17~6.18)

1983년 탄생한 인천 재즈클럽 <버텀라인>이 올해 33주년을 맞이해 33일 동안 <33페스티벌>을 엽니다. 재즈칼럼리스트 황덕호와 함께 하는 재즈토크 음감회(5.21, 6.4),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재즈를 넘나드는 음감회’에서는 1985년 다희다방에서 DJ를 했던 허정선 대표가 직접 DJ로 나서 ‘메리지블루’와 ‘Fake Jazz 재즈를 착취한 노래’ 등의 주제로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33주년 기념 스페셜 공연, 동인천 음악감상실 <심지>를 재현하는 ‘심지 리로리드’ 등 지역 예술가들의 특별 기획은 물론 세계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보는 ‘동인천 맥주 대작전’, 예술가들을 위한 블라인드 데이트 ‘어둠 속의 데이트’, 버텀라인과 같은 오래된 건축물을 탐방하는 ‘건축 투어’ 등의 이벤트로 33일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특별하고 오래된 재즈클럽 버텀라인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자세한 내용은 버텀라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lubbottomline 에서 확인



예술가의
자기경영을 위한
IAP 특강 02
2016.5.26(목) 17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50명 선착순 예약자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강연자 소개 최유진
IAP

5월 IAP 특강(5.26 목 17: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매월 열리는 예술가의 자기 경영을 위한 IAP 특강,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연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유진 디자인 주무관의 ‘미술관 전시디자인의 이해’입니다. 다양한 국.공.사립 뮤지엄에서의 기획은 물론, 다수의 상업영화 등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최유진 주무관의 노하우를 함께 들어보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신청하러 가기

발로
플리마켓
날짜 2016. 5. 28 (토)
모집기간 4. 25 (월) ~ 5. 13 (금)
시간 p.m 12:00 ~ 6:00
모집인원 30팀
장소 카페 발로(valor)
참가비용 무료
참가신청
기타사항

VALOR 플리마켓(5.28 12:00, 카페 발로)

영화 뷰티인사이드 촬영지로 유명한 부평의 발로(VALOR)를 아시나요? 영화,CF,뮤비,패션화보,드라마 등의 촬영이 매일매일 이뤄지고 있는 카페 발로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판매 수익금의 10%를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플리마켓을 처음으로 연다고 합니다. 예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

☞ 자세한 사항은 카페발로 홈페이지(cafevalor.modoo.at)와 인스타그램(@cafe_valor)을 참조해주세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休(휴)요일 음악회
5.1(일) ~ 7.10(일)
INCHEON
자유공원
2시 빌리지브라더스
3시 씨없는 수박 김대중
아트플랫폼
4시 모리쉬
5시 악통

인천개항장문화지구 休(휴)요일 음악회

매주 일요일, 자유공원 숲 속(2시, 3시)과 인천아트플랫폼(4시, 5시)에서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휴식같은 음악을 즐겨보세요. 5.22(일)에는 2시 빌리지브라더스, 3시 씨없는수박 김대중의 공연이 자유공원에서, 4시 모리쉬와 5시 악통의 공연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립니다. 휴일 음악회는 7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계속됩니다.

☞ 관련정보 : https://www.facebook.com/hueconcert/?pnref=lhc

동네방네알림판 **2016.4.19~5.2**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5.17(화), 6.7(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 한국근대문학관, 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문학 전시(2016.5.3.~7.3)

한국근대문학관이 특별전시 ‘윤정미 사진전-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문학’을 준비했습니다.

사진과 한국 근대 소설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 B사감과 러브레터, 오발탄 등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소설을 재치있는 해석과 현대적인 시선으로 담은 윤정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lit.ifac.or.kr/

☒ 트라이볼 시리즈, 피아니스트 박종화 공연(5.6, 20:00~)

세계 3대 콩쿠르의 하나로 알려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최우수 연주자 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날 공연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요로 구성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너무 좋은 공연이겠죠? 트라이볼 홈페이지에서 공연 예약 가능합니다.

문의는 재단 공간사업팀 032-455-7184, http://www.tribowl.kr

당신의 토요일을 책임지는 **5**월의 만국시장(**5.7,** 인천아트플랫폼)

<초록> 테마로 꾸며지는 아기자기 플리마켓, 길에서 만나는 특별한 라이브 공연, 취향 저격 맞춤 영화까지! 당신의 토요일을 풍요롭게 해줄 만국시장이 드디어 첫 장을 엽니다. 5월 7일(토) 12시부터 인천아트플랫폼으로 오세요! 별난마켓, 별별극장, 만국음악살롱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국시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0000market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올 상반기 중 개관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5월 10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받습니다. 재미있고 친근한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http://me2.do/FA7iVDvS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MOU** 체결

인천문화재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목)과 28일(목)에 각각 인천관광공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상호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와는 문화·관광 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가는 한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는 문화와 과학예술의 융합교육을 바탕으로 한 과학 예술영재를 양성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책장 **in** 배다리 한미서점

엄마는 어떤 책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요? 헌책방에서 그 책을 읽으며 함께 이야기해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과 책을 바꿔 읽습니다. 선착순 모집! 2기는 5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서점 블로그 http://booknstory.blog.me